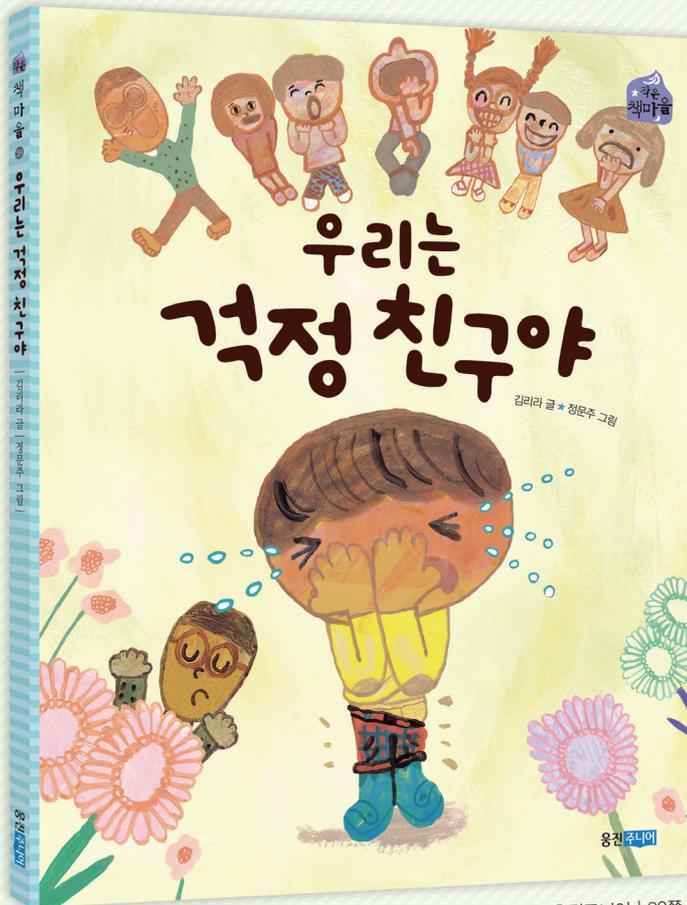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3학년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김리라 글 | 정문주 그림 | 웅진주니어 | 80쪽

##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우리는 걱정 친구야〉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우리는 걱정 친구야’를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한 친구, 둘도 없는 걱정 친구야!  
민재는 부츠 걱정, 도영이는 말더듬이 걱정,  
두 친구 마음속은 걱정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민재와 도영이는 소중한 걱정 친구예요.  
둘이 함께 걱정 노래를 부르고,  
둘만 아는 걱정 신호를 만들어 신호를 보내면  
어떤 걱정도 숨이 차게 달아난답니다!

① ‘민재’와 ‘도영이’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관계인가요?

⇒

② ‘민재’와 ‘도영이’가 걱정을 달아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어휘력 쓱쓱 키우기(1)

이름 :

💡 다음은 <우리는 걱정 친구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부츠가 보이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바지를 조금 내린다는 게 그만 팬티까지 조금 내리고 말았어요.
  - 내가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노려보니까 생각한 대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 내가 물었지만 나무는 이파리만 훌훌 떨구었어요.
  - 자신이 별로 없어서인지 자세도 엉거주춤하고, 공룡 신호를 할 때도 비실비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 “조, 좋아. 한눈팔지 말고 잘 봐.”
- (나) · 정말 이파리가 ㉠    움직이는 게, 아빠 말을 알아듣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 엄마는 내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샌들만 ㉡    들여다보았어요.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다.
- ②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이 기울여지다.
- ③ 마땅히 볼 데를 보지 아니하고 딴 데를 보다.
- ④ 미운 감정으로 어떠한 대상을 매섭게 계속 바라보다.
- ⑤ 아주 앞지도 서지도 아니하고 몸을 반쯤 굽히고 있다.

2) (나)의 ㉠~㉡에 들어갈 말의 뜻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팔이나 꼬리 따위를 가볍게 자꾸 흔드는 모양.
- ㉡ 일정한 방향이 없이 요쪽 조쪽으로.

##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우리는 걱정 친구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나무 (            )도 굵고, 가지도 여러 갈래로 뻗어 있고, 이파리도 무성하잖아.”  
 · 도영이는 안 일어나려고 (            )을 썼어요.  
 · “그럼 저는 남자 한복 입고, 도영이는 여자 한복 입고 (            ) 쓰나 해서요.”  
 · 내가 묻자, 도영이가 좀 더 (            )을 넣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 수업이 끝나고 도영이와 함께 집에 가려는데, 도영이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운동장 (            )를 가리켰어요.
- (나) · 2교시 받아쓰기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받아쓰기 공책이 없어서 다른 아이들이 시험을 다 ㉠볼 때까지 뒤에 나가 서 있었어요. 도영이랑 짝이 안 되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별까지 서서 더 ㉡속상했어요.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밑동 : 나무줄기에서 뿌리에 가까운 부분.  
 ② 조희대 : 조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대(臺).  
 ③ 안간힘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  
 ④ 족두리 :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⑤ 운율 :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 음의 강약, 장단, 고저 또는 동음이나 유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짐.

2) (나)의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 자신의 실력이 나타나도록 치르다.  
 ㉡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는 따위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

## 부츠 걱정

이름 :

💡 다음 〈우리는 걱정 친구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날씨가 따뜻해졌는데도 무거운 부츠를 계속 신어야 하다니, 내 입에서도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 어쩔 수 없이 부츠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부츠를 신어서 그런지 조금 걸었는데도 발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비라도 내리면 부츠가 장화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비는커녕 봄 햇살 때문에 눈이 부셨어요. 혹시나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나처럼 부츠를 신은 아이는 없었어요.

(나) 아빠가 떠난 뒤부터 느티나무 앞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는 버릇이 생겼어요. / ‘나무야, 우리 아빠도 어디 갔다! 나도 너처럼 혼자가 된 기분이야.’

그동안은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속상해서 소리 내어 말하고 싶었어요. / “나무야, 너도 부츠가 마음에 안 들지? 창피하지?”

나무는 무성한 이파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마치, ‘너도 나처럼 해 봐.’ 하는 것 같았어요. / 나도 바지 끝을 잡고 조금 내려 보았어요. 나무처럼요. 그랬더니 바지 끝자락이 부츠를 덮어 주어서 한결 기분이 나아졌어요. 내 걱정을 들어 주었으니까, 앞으로 ‘걱정 나무’라고 불러야겠어요.

1) (가)에서 ‘나’(민재)의 입에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던 이유를 쓰시오.

⇨

2) (나)에서 ‘나’(민재)는 속상한 마음과 자신의 걱정을 느티나무에 말해서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고 했다. 이러한 ‘나’(민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 왕고자질쟁이 / 벌

이름 :

💡 다음 〈우리는 걱정 친구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악이 나오자 선생님이 먼저 춤을 보여 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신이 나서 따라 추었지만, 나는 춤을 제대로 따라 할 수가 없었어요. 춤을 추느라 몸을 움직이면 바지가 자꾸 올라가 감추고 싶은 부츠가 흰히 다 드러났거든요.

부츠가 보이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바지를 조금 내린다는 게 그만 팬티까지 조금 내리고 말았어요. 누가 볼까 봐 얼른 팬티랑 바지를 올렸는데, 뒤에서 도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 “푸하하하. 민재 고추 좀 보래요 ♪, 엉덩이 좀 보래요 ♪.

김민재 고추 좀 보래요 ♪, 엉덩이 좀 보래요 ♪.” / 뒤에서 도영이 녀석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춤을 추다 말고 나를 쳐다봤어요.

(나) 도영이와 나는 깔깔 웃느라 그만 벌서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 그동안 도영이를 미워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았어요. / “너희들 벌서라고 했더니 뭐 하는 거니?” / 도영이와 나는 선생님한테 걸려서 또 혼이 났어요. 하지만 왕벌을 피하느라 그랬다고 말하자, 쓰레기 줍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걱정 나무한테 들었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 “도영이 말이야, 처음엔 왕고자질쟁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

1) (가)~(나)에서 ‘나’(민재)와 ‘도영이’에게 있었던 일이다.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가) : ‘나’는 □□가 보이는 것이 너무 신경 쓰여서 □□를 조금 내린다는 것이 □□까지 조금 내렸는데, 도영이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로 노래함.	↔	(나) : ‘나’와 도영이는 깔깔 웃느라 □□□□도 잊어버렸고, □□□□한테 걸려서 또 □□이 났고, ‘나’는 걱정 나무한테 도영이가 □□□□□□□□가 아니라고 말했음.
--	---	--

2) (가)에서 ‘나’(민재)가 춤을 제대로 따라할 수 없었던 이유를 쓰시오.

⇨

## 우리 걱정 친구 하자 / 걱정 신호가 ~

이름 :

💡 다음 〈우리는 걱정 친구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 민재 넌 떨지도 않고 말 잘하더라. 나, 난 선생님 앞에 서면 가슴이 콩콩 뛰는데 말 이야. 저, 정말 고마워!” / 도영이가 나를 보며 웃었어요.

“그, 그런데 민재야, 너한테 구,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뭔데? 말해 봐.” / “저, 저번에 패, 팬티는 왜 벗었어?” / “그, 그게 부츠 때문에……. 내 발 이 커져서 지난가을에 신던 운동화가 안 맞거든. 부츠를 가리려고 바지를 내린다는 게 그만 팬티까지 내린 거야.” / “그럼 새 운동화 사 달라고 하지.”

“지금은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아빠 월급날 사 준대.” / “그, 그렇구나. 난 하고 싶은 말이 술술 안 나와서 걱정! 네 부츠 때문에 걱정! 그리고 보니 우린 둘 다 걱정이 있네.” / “그러네! 너도 걱정, 나도 걱정.” / 나는 도영이를 보며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걱정 친구야.” / 도영이가 노래를 부르듯이 말했어요.

(나) “미, 민재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내 사물함에 새 공책 있었는데. 마, 말하기 힘들면 신호라도 보내지.” / 도영이는 무척 아쉬운 얼굴로 말했어요. / “신호?”

“으응, 너, 너랑 나랑만 알아듣는 신호……. 아, 너랑 나랑 걱정 친구니깐 걱정 신호를 만드는 건 어때? 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신호를 보내서 알리는 거야.”

1) (가)에서 ‘나’(민재)와 ‘도영이’가 각각 고민하고 있는 걱정을 쓰시오.

① ‘나’(민재) :	② 도영이 :
-------------	---------

2) (나)에서 ‘나’(민재)와 ‘도영이’가 만들고자 하는 신호는 무엇인지 쓰시오.

⇨

## 꼬마 원숭이 / 나쁜 형

이름 :

💡 다음 〈우리는 걱정 친구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좋아, 내 걱정 신호는 바로 나무 신호야.” / 나는 나무처럼 한쪽 팔을 올리고 춤을 추듯 천천히 흔들었어요. / 그러고는 다시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춤을 추듯 천천히 흔들었어요. / 마치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처럼요.

“한쪽 팔을 흔들면 조금 급할 때고, 두 팔을 흔들면 아주 많이 급할 때야.”

“미, 민재 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하기도 쉽고, 멀리서도 잘 보이겠다. 대단해!” / 도영이한테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나) ‘어? 왜 두 팔이지? 벌써 까먹었나?’ / 나는 선생님 눈을 피해 얼른 복도로 나갔어요. / “도영아! 왜 이제 왔어? 그리고 급할 일이 생겼을 때만 두 팔을 써야…….”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도영이가 갑자기 울먹거렸어요.

“미, 민재, 민재야, 나, 나쁜 형들, 형들이 내 딱지…….” / “나쁜 형들이 네 딱지 어떻게 했다고?” / 도영이는 울먹거리면서 줌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나 주려고 비닐봉지에 딱지를 넣어서 학교에 왔다가 3학년 형들이랑 딱지치기 시합을 했던 말이지?” / “응. 내, 내가 그만한다고 하니까, 허, 형들이 내 휴대폰이랑 딱지를 몽땅 하수구에 빠뜨렸어.”

1) (가)에서 ‘나’(민재)가 ‘도영이’에게 제안한 걱정 신호의 방법과 규칙을 쓰시오.

⇒

2) (나)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도영이가 ‘나’를 주려고 □□를 가지고 학교에 왔다가 □□□ 형들이 랑 □□□□□□을 했음.	➔	딱지치기를 □□□□ 고 하니까, 형들이 도영 이의 □□□□과 □□ 를 몽땅 하수구에 빠뜨 렸음.	➔	도영이는 ‘나’에게 □ □로 □□□이 생겼 을 때만 사용하는 □□ □□를 보냈음
---	---	---	---	---

## 노동자 작전 / 아빠가 온다

이름 :

💡 다음 <우리는 걱정 친구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렇게 옆으로 서. 그래야 네가 누군지 못 알아볼 거 아니야?”

도영이와 나는 마주 섰어요. 내가 먼저 나쁜 형을 노려보는데, 도영이가 ㅋㅋ 웃었어요. / “미, 민재야, 나 자꾸 웃음이 나와.” / “참아!”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바로 그때 나쁜 형이 획 돌아섰어요.

“노동자 돌려!” / 도영이와 나는 얼른 노동자를 반대로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쁜 형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다시 형을 노려봤어요. 힘을 너무 주어서 그런지 눈이 조금 아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땀 뚫린 것처럼 시원했어요.

(나) “우리 땀 식히러 시원한 곳에 갈래?” / “에, 에어컨 있는 데야?”

“아니, 더 근사한 곳이야. 따라와 봐.” / 나는 도영이를 데리고 걱정 나무한테 갔어요. / “내 걱정 친구 도영이야!” / 나는 도영이를 걱정 나무에게 소개했어요.

“나, 나무는 귀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 “저것 봐! 이파리가 사랑사랑 움직이잖아?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신호야.” /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도영이가 목을 쪽 빼고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 “저, 정말이네.”

1) (가)에서 ‘나’(민재)와 ‘도영이’가 함께한 ‘노동자 작전’을 요약하여 쓰시오.

⇒

2) (나)에서 ‘나’(민재)는 걱정 친구인 ‘도영이’를 걱정 나무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나’(민재)와 ‘도영이’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 독해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이름 :

1) 다음은 〈우리는 걱정 친구야〉에 나온 그림이다. 각각의 그림을 보고, ‘나’(민재)와 ‘도영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인지 쓰시오.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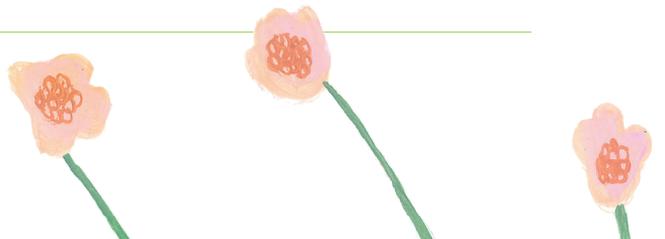
2) 이 이야기에서 ‘나’(민재)는 부츠를 신고 다니는 것을, ‘도영이’는 말이 술술 안 나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써 보시오.

⇒





A series of horizontal green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 정답과 해설

3쪽	<p>(예시답안) 1)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걱정 친구라고 하니 무엇을 걱정해 주는 것인지 궁금했다. 2) 바지가 내려간 남자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고 있고, 오른쪽의 꽃송이 뒤에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눈을 감으며 두 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우는 아이 뒤에 많은 아이들이 웃고 있다. 3) ① 민재는 부츠 걱정, 도영이는 말더듬이 걱정으로 가득하고, 소중한 걱정 친구이다. / ② 둘이 함께 걱정 노래를 부르고, 둘만 아는 걱정 신호를 만들어 신호를 보냈다.</p>
4쪽	<p>1) ②, ④, ①, ⑤, ③      2) ㉠ : 실랑실랑, ㉡ : 요리조리</p>
5쪽	<p>1) ①, ③, ④, ⑤, ②      2) ㉠ : ㉡, ㉢ : ㉣</p>
6쪽	<p>1) 봄 햇살에 날씨가 따뜻해졌고 비도 오지 않는데 무거운 부츠를 계속 신어야 해서. 2) (예시답안) '나'는 아빠가 떠난 뒤부터 느티나무 앞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라고 속으로 말했다. 그런데 오늘은 부츠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소리 내어 '나'의 걱정을 말했다. '나'가 걱정 나무를 보며 걱정을 말해서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p>
7쪽	<p>1) (가) 부츠, 바지, 팬티, 큰 소리 / (나) 벌서는 것, 선생님, 혼, 왕고자질쟁이 2) 춤을 추느라 몸을 움직이면 바지가 자주 올라가서 감추고 싶은 부츠가 흰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p>
8쪽	<p>1) ① 발이 커져서 지난가을에 신던 운동화가 안 맞아서 부츠를 신고 다녀야 하는 것. 1) ② 선생님 앞에 서면 가슴이 콩콩 뛰어서 하고 싶은 말이 술술 안 나오는 것. 2) '나'와 도영이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보내는 신호.</p>
9쪽	<p>1) 팔을 올리고 춤을 추듯 천천히 흔들어야 하고, 조금 급할 때는 한쪽 팔을, 아주 많이 급할 때는 두 팔을 흔들어야 함. 2) 딱지, 3학년, 딱지치기 시합 / 그만한다, 휴대폰, 딱지 / 두 팔, 급한 일, 걱정 신호</p>
10쪽	<p>1) '나'와 도영이가 마주 서서 나쁜 형이 안 보는 틈에 눈동자만 돌려서 노려보는 것. 2) (예시답안) '나'가 도영이를 걱정 나무에게 소개하자, 도영이는 귀도 없는 나무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물었다. 이에 '나'가 이파리가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신호라고 했다. '나'와 도영이의 대화를 보니 그들은 정말 순진무구한 친구들인 것 같다.</p>
11쪽	<p>1) ① '나'가 운동화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부츠를 신고 나오는 장면 / ② '나'와 도영이가 등을 맞대고 벌서다가 왕벌이 나타나서 피하는 장면 ③ 도영이가 '나'에게 두 팔을 흔들며 급할 때 보내는 걱정 신호를 보내는 장면. 2) 생략</p>



응진 **주니어**

값9,000원



ISBN 978-89-01-16141-9  
ISBN 978-89-01-05987-7(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